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김일태 영암군수

“달마지쌀·한우 명품으로 육성”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민선 4기 군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일태 영암군수는 “지난해에는 친환경 농업과 성장 인프라의 기반 구축을 통해 선진 자치시대를 열었다”며

영농비 절감 주력

“2008년은 영암을 서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영암군민중 절반이 농민”이라고 밝힌 김 군수는 신농업 사회 구축을 최우선 군정 목표로 내세웠다.
김 군수는 “RPC(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합해 ‘달마지쌀 골드’를 세계적 명품 쌀로 만드는 한편 영암 한우를 한국대표 한우로 육성하겠다”며 “밭 기반 정비 등 영농비 절

감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철저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도 빼놓을 수 없는 역점 사업이다.
현재 70% 수준인 대불산단 입주 기업 가동률을 80%로 높이고, 거주환경 개선과 고객 지향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임직원의 관내 거주비율도 30%에서 50%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 적극적인 민자유치로 삼호읍 용당리 일대에 33만㎡(10만여평) 규모의 지방산단을 추가 조성하고, 기업들의 투자 확대 및 농공단지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도 대폭 강

대불산단 진입로 개설

화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이를 위해 469억원을 투입, 대불산단 진입로 개설과 전선 지중화 사업, 교량하중 보강공사 등을 추진, 대불산단을 전국 최고의 모범 산단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각



오다.
관광산업도 2008년 군정 발전의 핵심 축으로 바둑테마파크 조성과 가야금 테마공원, 마한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또 도기문화센터 개축과 한옥체험관 건립, 구림마을 명소화 사업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영암을 가장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관광 허브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실현에 옮기고 있다.
김 군수는 올해를 ‘영암자주권 찾기 운동’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영암 자주권 찾기 운동

김 군수는 “목포항에 속해 있는 6개 부두를 영암항으로 분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삼학도 석탄 부두 이전 문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영암 중심의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분야도 지난해 주민생활서비스 대통령상 수상의 여세를 몰아 군민이 감동하는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에 주력할 생각이다.
김 군수는 “소외계층 지원은 물론이고 장수 수당 지급과 찾아가는 노인교실, 방문보건 사업 등 군민 감동형 복지시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박지성 형처럼 될거야” 서울 등 전국 10여개 초등학교 축구팀들이 강진 천연잔디 구장에서 동계 훈련을 통해 기량을 연마하고 있다.

따뜻한 전남 ‘동계훈련장’ 각광

강진·고흥 등 140여개 팀 찾아...경제효과 200억

강진과 고흥 등 전남 지역이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각광 받고 있다.
강진지역에는 새해부터 전국에서 초·중등 축구팀 34개 팀을 비롯해 태권도와 테니스, 사이클 각각 10개 팀 등 70여 개 팀이 훈련을 하고 있다. 이달 하순에는 대학축구팀과 초등 여자 축구팀 등 40여 개 팀이 추가로 합류하는 등 겨울에만 5천여 명이 강진을 찾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에는 럭비국가대표팀과 서울시청여자축구팀, 사이클 상비군 국가대표팀 등이 강진에서 기량을 연마했다.
이에따라 강진군에 있는 천연축구 경기장 3면을 포함한 축구경기장 9면과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관내 모든 체육시설들이 선수들의 훈련 열

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남도 끝자락에 위치한 고흥도 동계 훈련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지역 초등 축구 20여 개 팀이 이달 15일까지 고흥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이밖에 목포와 장흥, 광양, 해남에도 축구팀 등 10여 개 팀이 찾아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이처럼 전남지역이 동계훈련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겨울철 따뜻한 기후로 야외 훈련이 가능하고 정갈한 먹거리와 훈련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에 각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구장 등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는 등 치열한 유치 경쟁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

나 가맹단체 등에 안내 공문을 보내고 행정적 지원 의지를 밝히는 등 빠른 유치전도 펼치고 있다.
전남도 내 각 지자체가 올해 동계 훈련을 통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200억 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방종합

해남군 올 첫 투자유치

(주)동경과 200억 협약

해남군이 오는 10일 (주)동경과 올해 첫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다.
동경은 본래면 예라리 2만9천500㎡ 부지에 200억원을 투자해 선박 부품인 파이프 조립 가공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착공돼 내년 말 완공 예정인 이 공장이 가동되면 직접 고용 인원만 300여 명이 이를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남군은 공장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상수도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동경에 이어 조만간 소형 조선소와 황토소재 공장 등 2개 회사와도 투자 협약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조선산업 활황으로 조선기자재 생산공장 부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해남읍 인근에 농공단지 신규조성을 검토 중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술선수범 행동하는 공직자 되겠다”

이광형 강진 부군수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이광형(54) 신임 강진 부군수는 “모든 일에 술선수범하는 마음 자세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가 고향인 이 부군수는 지난 74년 공직 생활을 시작해 전남도 자치행정과 기획팀장, 홍보

담당, 관광진흥담당, 관광문화국 관광개발과장, 행정정책과장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박경자씨와 사이에 1남1녀가 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광산구청 홈페이지 새단장



광산구청 홈페이지(www.gwangsan.go.kr)가 콘텐츠를 대폭 보완해 9일부터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광산구청 홈페이지는 자유 제한 코너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 수렴 기능을 강화했다.
광산구는 홈페이지 개편 기념으로 9일부터 15일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오·탈자 등 오류 정보찾기 이벤트를 실시해 5명을 선발, 표창할 계획이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고고학박물관 착공·복암리 고분 전시관 건립

나주, 역사문화도시 거듭난다

문화재연구소도 설계비 확보

영산강 고고학박물관이 올해 착공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복암리 고분 전시관 건립이 가시화되는 등 ‘천년 목사골 나주’가 역사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난다.
영산강 고고학박물관은 올해 예산 23억9천600만 원을 확보, 실시설계를 거쳐 빠르면 연말 착공된다.
나주시도 시비 17억5천만 원을 확보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부지매입에 들어가 상반기 내에 토지매입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332억7천만 원이 투자되는 영산강 고고학박물관은 부지 8만2천610㎡, 연면적 8천260㎡ 규모로 2011년 완공돼 영산강 일대에서 출토된 독특한 대형옹고분과 관련 유물을 전시 연구하는 전문박물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물관이 들어설 반남면 신촌리 290번지 일대는 대형옹고분 35기가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인근 고속도로에서 1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또 100억원을 들여 다시면 복암리에 세워지는 복암리 고분 전시관은 이달 중 문화재청의 건립계획

이 확정되면 곧바로 실시설계를 거쳐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구 영산포역에 건립되는 국립 문화재연구소도 올해 실시설계비 3억2천만 원을 확보했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영산강 고고학박물관과 복암리고분 전시관, 국립문화재 연구소 건립이 마무리되면 나주시가 명실상부한 역사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구레, 부동산 특별조치법 따라

8억7천만원 등기 수수료 경감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구레지역에서는 1만1천580건의 토지 소유주 확인신청이 접수됐다.
구레군은 연인원 500명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인 뒤 확인서를 발급, 8억7천만원의 등기 수수료 경감 효과를 거뒀다.
/구레=김동호기자 dhkim@

Advertisement for 'S' Line health products, featuring a woman and text about health benefits.

Advertisement for consumer satisfaction, featuring various household appliances like washing machines and dryers.